

석사학위논문

MBTI 성장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잠재적 비행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박태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고광우

2000년 8월

MBTI 성장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잠재적 비행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박 태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0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고광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0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MBTI 성장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잠재적 비행에 미치는 효과 고 광 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태 수

본 연구는 MBTI 성장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 청소년들의 잠재적 비행에 대한 심리적 이해를 높이고 그들의 잠재적 비행을 예방하여 자아 성장을 돕고자 시도된 실험연구로써,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문제를 ‘MBTI 성장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잠재적 비행(낙인형, 억울형, 공격형, 교우형)의 감소에 효과가 있는가’로 정하고, 이러한 연구문제를 구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MBTI 성장프로그램이 투입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낙인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2 : MBTI 성장프로그램이 투입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억울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3 : MBTI 성장프로그램이 투입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공격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4 : MBTI 성장프로그램이 투입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교우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0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소재한 S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 전체학급의 학생들에게 안창규(1990)에 의하여 연구, 개발, 표준화된 '잠재적 비행청소년 조기진단검사지'를 이용하여 1차 검사를 실시하고 타 학급에 비하여 잠재적 비행성향이 높게 나타난 한 학급의 학생 30명을 15명의 상담집단과 15명의 비교집단으로 나누고 상담집단에만 심혜숙·김명권(1996)이 개발한 '비행청소년을 위한 MBTI 성장프로그램'을 연구대상에 맞게 재구성하여 투입하였다. 상담집단에는 약 4개월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 방과후에 1일 평균 5시간씩 총 10회 50시간 분량의 MBTI 성장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게 잠재적 비행청소년 조기진단검사를 2차로 실시하였다. 사전-사후검사 결과는 SPSS/PC+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하였다.

가설의 검증은 사전-사후검사 결과에 의한 평균치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T-test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MBTI 성장프로그램은 낙인형 잠재적 비행의 감소에 효과가 있다.
- 둘째 : MBTI 성장프로그램은 억울형 잠재적 비행의 감소에 효과가 있다.
- 셋째 : MBTI 성장프로그램은 공격형 잠재적 비행의 감소에 효과가 있다.
- 넷째 : MBTI 성장프로그램은 교우형 잠재적 비행의 감소에 효과가 있다.

이처럼 MBTI 성장프로그램은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잠재적 비행을 감소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MBTI 성장프로그램을 학교교육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잠재적 비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4
II. 이론적 배경	5
1. MBTI 성격유형의 특징	5
2. 청소년의 특성과 잠재적 비행	11
3. MBTI 성장프로그램의 구성	19
4. MBTI 성격유형과 잠재적 비행과의 관계	21
III. 연구방법	26
1. 연구대상	26
2. 연구설계	26
3. 연구절차	27
4. 측정도구	30
5. 자료처리	32
IV. 연구결과 및 해석	33
1. 연구대상에 대한 동질성 검증	33
2. 가설검증	34
V. 요약, 결론 및 제언	39
1. 요약	39
2. 결론	41
3. 제언	42
<참고문헌>	43
<Abstract>	46
<부록>	49

표 목 차

<표Ⅱ-1> MBTI의 16가지 성격유형	10
<표Ⅲ-1> 연구설계의 구성	27
<표Ⅲ-2> 잠재적 비행청소년을 위한 MBTI 성장프로그램	28
<표Ⅲ-3> 잠재적 비행유형 분류를 위한 문항구성	32
<표Ⅳ-1>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잠재적 비행의 사전점수 비교	33
<표Ⅳ-2>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한 낙인형 잠재적 비행의 사전-사후검사의 점수 비교	34
<표Ⅳ-3>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한 억울형 잠재적 비행의 사전-사후검사의 점수 비교	35
<표Ⅳ-4>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한 공격형 잠재적 비행의 사전-사후검사의 점수 비교	37
<표Ⅳ-5>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한 교우형 잠재적 비행의 사전-사후검사의 점수 비교	3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의 청소년비행은 날로 그 양상이 포악해지고 비행청소년들의 연령은 낮아지고 있으며 범죄의 동기 또한 유흥이나 충동에 의한 것이 많아지고 있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청소년백서, 1998).

청소년들은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발달시기를 맞이하여 건강한 성격과 학업 그리고 사회성들을 성취해야 할 위치에 놓여 있으나, 이들이 한번 비행을 저지르게 되면 흔히 성인범죄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개인 장래의 진로개척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비용을 감당하게 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비행예방과 치료는 절실히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반사회적 행동에는 공격적 행위, 절도,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에서부터 음주, 흡연, 흡기소지, 싸움 및 부녀자 희롱 등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풍기사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반사회적 행동들은 사회적 일탈행동, 품행장애(conduct disorders), 사회병질적 성격(psychopathic personality), 품행문제 및 청소년비행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워져 왔다. 이들 용어 중에서 청소년비행은 대체로 법적,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범질서 유지나 청소년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사회·문화적으로 기대되는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을 의미하여 자신과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행동을 말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청소년 비행을 어느 정도 스스로 행동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기대되는 미성년자가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그 다수 구성원들의 허용한계를 초과할 정도로 이탈함으로써 부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안창규, 1987).

청소년 백서(1998)에 의하면 총범죄 중에서 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7.6%(164,182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년범죄 중에서 학생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62.9%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풍기단속에 의한 미성년자는 265,535명으로 나타나 있고 그 중 학생비행이 45.2%를 차지한다. 이러한 청소년비행의 통계적 자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청소년비행 연구(노안녕, 1980 ; 심혜숙·김명권, 1996 ; 임병연·임혜영, 1999)는 대체로 나타난 공식적 기록에 의거하거나, 또한 처벌 및 교정과정에서의 기관에 수용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결과들은 심각한 기관수용 비행청소년의 비행원인 설명 및 교정지도의 효과에 관하여는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풍기사범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비행이면서도 적발되지 않는 보다 포괄적 숨은 비행의 특징을 나타내는 학교비행에 관한 원인설명 및 교정지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 장면에서 일어나는 학생비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지도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생활지도 및 상담활동은 이들 비행의 원인이나 그 심리적 발달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교정하기 위한 사회·심리적 변인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비행이 표면화될 때 이들을 낙인화하여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장면에서 흔히 나타나는 청소년비행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는 무엇보다도 그들 자체를 표집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들의 비행이 표면화되기 전에 찾아내고 지도하려는 방법들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로, 청소년비행이 청소년 자신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자주 거론되어 왔으나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과 교정에 대한 많은 요구들에 비해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노력이 미미하여 그 성과는 아직 미지수라 할 수 있다. 비행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왔으나, 기존에 개발된 많은 프로그램들은 각 개인의 성격적 차이를 무시한 채 동일하게 적용되는 프로그램들이어서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치료의 성과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성격유형을 다루는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를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숙경, 1994 ; 김숙영, 1994 ; 최여원, 1994 ; 임병연·임혜영, 1999). 이 선행연구들은 성격유형과 청소년비행과의 관계만을 다루고 있어서 MBTI 성장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흡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현정(1993)의 부부관계 중심의 인간관계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와 심혜숙·김명권(1996)의 보호관찰 수강명령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비행청소년을 위한 성장 프로그램은 MBTI 성장프로그램이 잠재적 비행청소년의 부적응행동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MBTI 성장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청소년들의 잠재적 비행에 대한 심리적 이해를 높이고 그들의 잠재적 비행을 예방하여 자아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를 통하여 MBTI 성장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잠재적 비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MBTI 성장프로그램은 낙인형 잠재적 비행의 감소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MBTI 성장프로그램은 억울형 잠재적 비행의 감소에 효과가 있는가?

셋째, MBTI 성장프로그램은 공격형 잠재적 비행의 감소에 효과가 있는가?

넷째, MBTI 성장프로그램은 교우형 잠재적 비행의 감소에 효과가 있는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구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MBTI 성장프로그램이 투입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낙인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2. MBTI 성장프로그램이 투입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억울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3. MBTI 성장프로그램이 투입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공격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4. MBTI 성장프로그램이 투입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교우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MBTI 성장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청소년들의 잠재적 비행에 대한 심리적 이해를 높이고 그들의 잠재적 비행을 예방하여 자아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다.

본 장에서는 MBTI 성장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잠재적 비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MBTI 성격유형의 특징, 청소년의 특성과 잠재적 비행, MBTI 성장프로그램의 구성, MBTI 성격유형과 잠재적 비행과의 관계 등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MBTI 성격유형의 특징



1) Carl Jung의 성격유형론

Jung(1875~1961)은 정신과 의사로서 자신이 임상에서 경험하고 관찰했던 많은 것들과 반대론자들과의 갈등 속에서 인간은 같은 사물을 보아도 서로 다르게 보며, 이런 차이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인식과 판단의 개인적 차이를 그 사람의 성격 유형(personality type)이라고 표현하였다. Jung의 성격유형론은 인간의 행동이 겉으로 보기에는 멋대로이고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무쌍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질서 정연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몇 가지의 특징적인 경향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강조한다(김정택 외, 1995). Jung의 성격유형론의 특징은 심리적 경향의 동적인 관계를 중시하는데 있다. 즉 몇 가지 특징적인 경향이 지니는 구조간

의 동적 관계를 Jung은 그의 성격유형론에서 일반적 태도상에서 보는 외향적 태도와 내향적 태도, 그리고 정신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의 기능으로 분리하고 이들을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정신 에너지인 Libido가 인간 내부로 향하느냐, 외부로 향하느냐에 따라 일반적 태도유형을 외향적 태도(E)와 내향적 태도(I)로 나눈다. 외향적 유형(E)은 타인과 객체 속에서 만족을 얻고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내향적 유형(I)은 자신 내부에 존재하는 주체적 요소에 의해 만족을 느끼고 자신의 내적 활동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에너지를 얻는다 따라서, 외향적 유형의 사람은 매우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반면, 내향적 유형의 사람은 사색적이고 조용한 경향을 띤다. 내향성이나 외향성 모두 정상적인 성격의 한 측면으로 둘 다 중요하며 상호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성격 유형에 대한 Jung의 포괄적인 이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간은 누구나 감각(sensing, S), 직관(intuition, N), 사고(thinking, T), 감정(feeling, F)이라 불리는 네 가지의 기본적인 정신적 기능(functions) 또는 과정(processes)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Jung이 제시한 네 가지 과정은 (S, N, T, F) 일종의 지향 기능(orienting function)으로서, Jung은 이 기능을 다양한 조건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반응케 하는 특정 정신활동의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김정택 외, 1995).

Jung은 사물을 보는 관점의 두 가지 선호경향으로 감각(S)과 직관(N)을 주장하고 있다. 감각(S)이란 우리의 감각(오감, 五感)을 통해 관찰하는 인식을 말한다. 감각(S)은 현재 일어나는 일만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감각적 인식을 선호하는 사람은 직접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며, 이러한 인식과 관련된 특징이 발달되어 현재를 즐길 줄 알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관찰능력이 뛰어나고 상세한 것까지 기억을 잘 한다. 반면에 직관(N)은 통찰

을 통해 가능성, 의미, 관계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직관(N)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들을 갑작스럽게 인식하는 패턴, 즉 육감(六感)이나 예감 또는 창의적인 발견과 같이 돌발적으로 의식에 떠오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직관적인 인식을 선호하는 사람은 상상적, 이론적, 추상적, 미래지향적 또는 창조적인 특징을 발달시킨다.

사고(T)와 감정(F)의 기능은 수집된 정보를 판단, 결정하는 이성적 기능들이다. 사고(T) 기능은 어떤 판단이 논리성을 지니고 참, 거짓을 다루어야 할 때에 사용되어지며, 감정(F) 기능은 사건에 대해 느끼는 유쾌함, 불유쾌함에 근거한 판단 시에 사용되어지는 기능이다. 따라서, 사고 기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원칙대로 참, 거짓의 판단을 중요시하는 반면, 감정 기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느낌과 감정에 근거하여 인간 관계의 조화를 통한 보편적인 선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Jung은 그의 성격유형론에서 외향성과 내향성(EI), 감각과 직관(SN), 사고와 감정(TF)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판단과 인식(JP)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암시를 하고 있을 뿐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판단과 인식(JP)의 기능은 Katharine Briggs와 그녀의 딸인 Isabel Myers가 MBTI를 개발할 때에 분명하게 정의된 개념이다.

판단적 태도(J)를 좋아하는 사람은 외부세계에 적응할 때 판단과정(사고나 감정)을 사용하기를 좋아한다. 즉 판단형의 사람은 의사를 결정하고 종결을 짓고 활동을 계획하고 어떤 일이든 조직적,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기를 좋아한다. 의사결정을 내릴 정도만큼의 정보를 얻으면 지각을 닫아버린다. 반면에 인식적 태도(P)를 선호하는 사람은 자기에 들어오는 정보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를 즐긴다. 삶을 통제하고 조절하기 보다 상황에 맞추어 적응하며 이해하려는 편이다. 호기심이 많으며 끝맺음보다는 개방된 상태를

선호하고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고 벌리는 것이 많다.

Jung은 그의 성격유형론에서 4가지의 정신기능이 두 가지의 다른 태도(외향, 내향)와 조합되어 다음과 같은 8가지의 성격유형을 도출해 낸다고 보았는데 이들의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심혜숙·김정택, 1993).

첫째, 외향적 감각형(ES)과 내향적 감각형(IS)으로써, 외향적 감각형은 감각이 주로 객체에 의해 결정된다. 항상 새롭고 강렬한 감각적 자극을 주는 대상을 향해 반응해 나간다. 실제적인 객관적 사물이나 사실을 중시한다. 외향적 감각형이 지나치면 무의식과의 괴리가 심해 공포증, 강박증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내향적 감각형은 객관적 자극에 의해서 주어진 주관적 감각에 따라 행동이 결정된다. 즉 객체에서 오는 자극은 객체의 현실과 연관성이 없는 주관적 반응을 통하여 대치됨으로써 그 가치가 줄어든다. 이들은 예민한 사진건판과 같아 모든 것을 세밀하게 지각한다.



둘째, 외향적 직관형(EN)과 내향적 직관형(IN)으로써, 외향적 직관형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것이 객관적 세계에서 실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데 비상한 능력을 발휘한다. 반면에 내향적 직관형은 직관기능이 객체가 아닌 내적 세계로 향한다. 현실에 있어서의 가능성보다 내적 정신세계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탐지하는 것이 그의 주기능이다. 그들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받지 못한다. 그들의 말은 논리가 없고 불가해하며, 현실감각이 결여되어 합리적인 유형의 사람에게는 몽상가, 신비가로 비친다.

셋째, 외향적 사고형(ET)과 내향적 사고형(IT)으로써, 외향적 사고형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고기능이 진행되며 객관적 검증을 중요시한다. 여러 가지 경험자료를 종합해서 일반적 결론에 도달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산출

해내는 것이 특징이다. 외향적 사고형에서 가장 억압되는 것은 감정이다. 따라서 감정에 의존하는 활동이 소홀해지기 쉽다. 반면 내향적 사고형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내면의 자기이념이나 관념에 따라 사고한다.

넷째, 외향적 감정형(EF)과 내향적 감정형(IF)으로써, 외향적 감정형은 객관적 기준이 감정 판단의 기준이 된다. “좋다”, “아름답다” 하는 평가는 전적으로 외부의 객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전통적 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에 부합된 감정판단을 한다. 객관적으로 순응한다. 이형의 사람은 친구를 쉽게 사귀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감정에 맞출 줄 알기 때문이다. 외향적 감정형에게는 생각한다는 것은 질색이다. 반면에 내향적 감정형은 내적인 기준에 따라 감정판단을 하고 생활하며 밖으로 잘 표현되지 않는다.

2) MBTI 성격유형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Jung의 성격유형론을 바탕으로 하여 Katharine Briggs와 Isabel Myers의 인간이해에 대한 노력으로 연구·개발되었다. 이들은 Jung에 의하여 주장된 개인의 타고난 성격유형을 MBTI를 통해 찾을 수 있게 하며, Jung이 자신의 성격유형론에서 간단히 언급한 JP척도의 기능을 더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MBTI는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 외향과 내향(EI), 감각과 직관(SN), 사고와 감정(TF), 판단과 인식(JP)의 4가지 척도를 통하여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가(정보수집 양식)와 인식한 것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판단양식)를 알 수 있게 하는 그 사람의 인식과 판단을 사용하는 방향의 기본적 선호를 반영한다.

위 네 척도의 양극 중에서 개인은 더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편안해 하는

한쪽 극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그 사람의 성격유형으로 표현된다. 각 척도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네 척도를 서로 조합하면 16가지의 성격유형이 형성되며 4개의 글자로 표현된다. 조합된 성격유형은 다음 <표 II-1>과 같으며, 유형론은 이 16개 성격유형 각각이 동등한 가치가 있으며, 각 유형은 자기만의 독특한 재능과 장점이 있고, 각자 취약한 영역, 주의하고 개발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ST	SF	NF	NT
IJ	ISTJ 내향성 감각형	ISFJ 내향성 감각형	INFJ 내향성 직관형	INTJ 내향성 직관형
IP	ISTP 내향성 사고형	ISFP 내향성 감정형	INFP 내향성 감정형	INTP 내향성 직관형
EP	ESTP 외향성 감각형	ESFP 외향성 감각형	ENFP 외향성 직관형	ENTP 외향성 직관형
EJ	ESTJ 외향성 사고형	ESFJ 외향성 감정형	ENFJ 외향성 감정형	ENTJ 외향성 사고형

<II-1 MBTI의 16가지 성격유형>

유형론은 4개의 선호들 사이에 서로 역동적인 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각 유형에는 주기능과 이 주기능을 돕는 보조기능이 있으며, 주기능과 보조기능은 서로 다른 방향의 태도(E, I)를 가지고 있어서 개인이 세상에 적응하는 데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주기능은 그 개인의 성격에서 선장역할을 하며 다른 세 기능은 똑같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주기능에 종속된다. 보조기능은 개인의 인식과 판단 사이에 균형을 제공한다. 선호척도에서 한쪽이 잘 발달하면 반대쪽 선호경향은 미분화된 채 남아있게 됨으로 개인이 가장 선호하는 기능인 주기능의 반대기능이 열등기능이 되고, 그 다음으로 선호되는 보조기능의 반대가 3차기능이 된다.

JP척도는 밖으로 드러나는 생활양식이 J(판단기능:T/F)인가 P(인식기능:N/S)인가를 알려주고, EI척도는 개인의 주기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므로, JP척도와 EI척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주기능, 보조기능, 3차기능, 열등기능을 파악할 수 있으며 16가지의 성격유형 모두 4가지 마음의 기능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그 성격유형의 독특성을 이루게 되는데, 이런 역동적 상호작용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개인은 적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2. 청소년의 특성과 잠재적 비행

1)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은 신체발달상 신장과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며 근육과 내장의 여러 기관도 현저히 발달한다. 특히, 생식기관의 성숙으로 제2차 성징이 뚜렷해진다(김충기, 1997). 사춘기의 급격한 생리적 변화는 필연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적지 않은 심리적 변화를 일으킨다. 사춘기에 있어서의 정서 및 기질의 불안정성도 성적 성숙이 원인일 때가 많다.

청소년기의 정서적 생활의 특색은 정서적 흥분성이 현저하다는 데에 있다.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관념적·공상적 세계의 급격한 발달과 성적 성숙에 의한 정서의 불안정성, 그리고 이상과 현실과의 상극에서 오는 열등감에 의한 불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정서의 흥분성이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사회적으로도 성숙하는 시기이다. 부모의 심리적 의존관계로부터 점차로 독립하여 자주적인 판단과 처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기주장, 가족기피의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청소년기는 친구와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는 시기이다. 자주독립을 요구하는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횡적 인간관계를 원칙으로 하는 자유롭고 대등한 친구관계를 중요시한다. 청소년기는 친구들과 사귀는 폭이 확대됨과 동시에 독립적인 관계를 갖고 장면에 따라 친구를 달리한다. 청소년기는 많은 친구들과 행동을 같이 하면서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뜻이 서로 같고 마음에 흡족한 소수의 친구들과 깊이 인격적으로 결합하며 교제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하여 청소년은 자기의 요구와 고민을 이해하고 위안해 주는 소수의 의견을 교환하는 데에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다

청소년간에는 생활공간이 지극히 확대 분화하여 미지의 영역이 증대하지만 이것은 필연적으로 과도적인 혼란과 불균형을 일으킨다. 그리고 유소년시에 지냈던 인생관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힌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소박한 인생관의 재음미가 필요하게 되고, 새롭고도 구체적인 높은 인생관을 가져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관은 확고하지 않고 동요하기 쉽다. 즉, 한때는 이상주의였던 것이 뒤에 가서는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인생관의 동요는 그들이 인생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한 사회의 직업인으로서 또는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들은 장차 한 사람의 독립된 직업인 및 시민으로서 출발해야 할 시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래의 생활계획, 특히 직업문제가 그들에게 중대한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직업인으로서의 독립은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청소년기의 희망, 야심, 환희, 실망, 우울, 반항, 회의, 우울감, 열등감 등의 여러 가지 정서는 결국 장래의 생활계획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의 잠재적 비행

비행이란 용어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의 여러 가지 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가리키며, 법률적으로 보면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를 가리키며, 도덕적 차원에서는 도덕적 규범을 어긴 것을 가리키며, 교육적 차원에서는 교육 기관의 규칙을 위반한 것을 가리킨다(박성수, 1994).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가지 규범이나 도덕적 규범 등을 위반하여 미래에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들을 비행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행동중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비행행동으로 규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교육풍토, 법률, 전통, 도덕, 관습에 따라서 다르며 또한 한 사회 내에서도 집단이나 개인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김진희 외, 1995).

청소년 비행이란 청소년들에 의해서 행해진 비행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의 행동 중에 어떤 일정한 가치의 잣대에 비추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청소년 비행을 논의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가치의 잣대는 성인 비행을 판단하는 잣대에 비해 도덕적, 교육적 기준이 강조된다(강지원 외, 1996). 청소년이 저지른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말썽피우는 행위, 무단결석, 음주, 약물남용, 가출 등 광범위한 사생활, 사회생활 및 법률준수와 관련된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와 같은 개념상의 특징을 반영하여 청소년 비행을 규정하고 있다(김진희 외, 1995).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기본법에서는 24세까지로 규정한 반면 소년법에서는 20세미만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에 의한 비행행위는 20세를 전후로 하여 법적으로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은 소년법 제4조에 의해 형벌법규를 위반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범죄소년, 형벌법규를 위반

하였으나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소년을
촉법소년, 실제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탈하고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
제하는 등 자신이나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격이 있어 통제하기가
어려운 행위를 비추어보아 장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12세에서 20세미만의 청소년을 우범소년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미성년자보호법에서는 불량행위소년(일명 풍기사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
량행위소년은 음주, 흡연, 싸움, 흥기소지, 유흥업소 출입, 성도덕 문란행위
등을 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소년을 지칭하고
있다. 우범행위와 불량행위는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그냥 방치해두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비행의 원인론에 관한 접근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청소년
의 비행에 관한 연구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듯이 비행의 원
인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어느 한 측면에서 보기는 어렵고 다변인적 현상(multivariate phenomenon)
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발달심리적 특성과 사회구조와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의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박태수, 1994).

청소년기라는 발달적 특징에서부터 오는 신체적 변화와 정서발달의 불균
형, 불안감정, 자아정체감 혼란 등의 일시적 현상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주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문제행동에 대하여 낙인
적이고 고정적인 관점을 가지기보다는 시기적인 영향을 간과하지 않고 가
능성과 잠재능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비행청소년의 지도에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 된다. 청소년들은 사회화의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나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기술, 분노조절 등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가

져야 하는 여러 가지 사회화기술의 미비가 비행화되도록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김진희 외, 1995).

비행청소년의 문제는 가정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가정은 인간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다. 청소년의 비행에 있어서도 문제를 생성시키고 보호육성기능을 약화시키는 가정의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가정의 기능적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어려서 부모의 사회화를 통하여 형성된 개개인의 인격과 확립된 가치관은 비행소년화를 촉진하거나 또는 예방하기도 한다. 청소년비행 및 문제행동과 비교적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여지는 문제가정의 형태를 부도덕가정, 결손가정, 애정결여가정, 갈등가정, 훈육결여가정, 빈곤가정, 시설가정으로 보고 있다(Sutherland and Cressy, 1975). 가정의 애정적 유대와 훈육기능의 약화 등은 결과적으로 가족 외부의 동료나 친구에게서 정서적 동일화를 추구함으로써 비행에 관여할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가정에서 소년비행과 관련 있는 또 다른 요소로서 하나는 행복하지 못한 부부관계에서 기인하는 지나친 가정 내의 갈등과 긴장이 자녀의 인격형성 및 사회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Neumeyer는 구조적인 부모의 결손보다는 오히려 심리적인 가정의 붕괴라고 볼 수 있는 부모간의 불화와 갈등을 둘러싼 긴장상태가 청소년비행의 더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모가 끊임없이 불화하고 갈등을 빚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잃기 쉽고 인격형성을 저지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해야할 학교교육이 청소년문제를 야기시키는 중요한 진원지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형식화되고 관료화되는 학교교육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병리현상들이 오늘날 증가하는 학생청소년범죄 및 비행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중·고교 학생 청소년집단은 실상 우리 나라 청소년 문제의 가장 핵심적 근거지이다. 1997년도에 발생

한 소년범죄자 중에서 약 62.9%가 학생들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그 범죄형태도 저연령화, 흉포화되고 있으며 중산층, 여학생범죄도 늘고 있다. 학교생활에의 부적응 즉 낮은 학업성취도, 낮은 학교애착, 학습무능력, 학교에서의 잘못된 경험 등은 청소년 비행과 매우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김선남, 1994). 특히 학교로부터의 공부압력이나 공부에 대한 고민과 청소년 비행과의 인과관계를 연구(김준호 외, 1990)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청소년들이 공부압력을 많이 경험할수록 지위비행, 가출, 성비행 등을 많이 범하고, 최초 범행시기도 빨라진다고 하였다. 성적이 불량하거나 진학을 하지 않게 되는 학생들은 학습동기를 잃어 학업성적은 더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는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조차 적응하지 못하고 압박과 증압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음주나 흡연이 시작되고,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드나들며, 심지어는 무단결석이나 가출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이 학업과 관련 없는 것에 매력을 느끼면 느낄수록 정상적인 생활에 적응할 기회가 적어져 반사회적 행위에 휘말려 들게 된다(윤덕중, 1988).

비행청소년들이 비행으로 합류하는 직접적 요인이 되는 것은 비행 또래집단과의 어울림인데,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짐과 동시에 학교에서는 애착을 느끼지 못하고 자연히 공부에 별 관심이 없는 또래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비행으로 가속화된다. 이는 청소년 비행이 주로 집단적 행태를 띄고 있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대검찰청이나 치안본부의 공식적 법적 기록에 근거한 비행의 논의는 Empey(1978)가 지적한 바 비행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이다. 즉, 공식적 기록에 의한 비행은 실제 일어나고 있는 비행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며, 더욱이 Williams와 Gold(1972)는 3년간의 공식기록에 나타나는 경우는 자기보고 내용에 비추어 겨우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역시 심영희(1980)도 한국의 '숨은 비행'에 관한 연구에서 숨은 비

행의 양은 공식 비행의 양보다 많으며, 비행의 유형, 심각성, 가시성 및 비행자의 사회적, 개인적 환경들에 따라 통계의 선택성이 다르게 작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숨은 비행의 문제는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비행을 학생으로서 기대되는 사회적 규범을 이탈함으로써 교육적으로 통제를 받을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해 볼 때 학생비행 중에서 노출되어 제재를 받은 학생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이 숨은 비행으로 남는다.

이러한 현상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경희, 1987)를 통하여 볼 때 실업계 남자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은 비행을 나타내며, 그 다음으로 실업계 여자고등학교 학생,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학생 순으로 이어지고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낮은 비행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숨은 비행으로서의 학생비행의 빈도가 법적 공식적 기록에서보다도 현저하게 높은 이유는 대부분이 풍기 사범이나 학교교칙 위반과 같이 법적 제재를 받을 만하지 못한 경미한 비행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역시 이러한 품행문제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행동들이기도 하며,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을 만한 풍기사범인 경우라도 대체로 보호자가 분명한 경우는 훈계방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비행은 당시에는 경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계속 하위문화와 접하게 되어 더 심한 비행문화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고, 우연한 기회에 법적인 제재를 받아 비행청소년으로 사회적 낙인이 될 가능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후일의 성인비행까지도 예언할 수 있을 뿐더러(Monahan, 1982), 우연적, 충동적, 심리적 상태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만한 심각한 비행에 까지 이를 수 있는 잠재성이 충분히 있음을 고려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잠재적 비행은 우범행위나 불량행위와 같이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그냥 방치해두면 장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잠재적 비행에 대하여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사회적으로 규범을 위반하여 실정법의 제재를 받게 되는 청소년 범죄와 비행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출이나 무단결석, 폭력 행위 등과 같이 사회적 규범에서의 이탈로 자신이나 사회에 해를 끼치기는 하지만 불법은 아닌 행동장애라고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비행을 청소년이 저지른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는 물론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여 장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발전할 수 있는 불량행위 즉 잠재적 비행까지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비행연구를 위한 방법적 문제로서 기관수용 비행청소년과 같은 공식적 기록에 의한 표집연구보다도 자기보고방법에 의한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해 준다. 자기보고에 의한 비행연구의 타당성은 우선 표집의 포괄성, 대표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공식기록에 의한 표집은 검거되는 당시의 우연적 상황이나 기회, 유혹, 사행심 및 충동성과 같은 청소년의 일시적, 심리적 상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우연적 조건이나 심리적 상태 외의 비행은 공식적 기록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며, 역시 검거되는 경우의 비행이라도 심영희(1980)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보호자가 없거나 가족결손, 부모의 소극적 태도 및 특정집단의 사회적 편견 등에 따라 편파적으로 입건되고 공식기록에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Empey(1978)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비행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역시 비행의 희생자들이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고발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의 노출이 실제보다는 매우 낮다고 한다.

안창규(1990)는 잠재적 비행의 유형을 낙인형, 억울형, 공격형, 교우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낙인형은 성인들에 의해 확인되고 낙인찍힌, 그리고 고질적 비행을 나타내는 유형이다. 법에 걸려본 일이 있고 교사에게 비행아로 확인되었으며 비행의 강도가 다른 세 유형의 비행보다 훨씬 강한 유형이다. 억울형은 내적 지향적이고 스트레스, 갈등, 성인사회에 대한 현저한 부적응 등으로 자기비하, 열등감, 우울감을 나타내고, 성인사회에 대한 반감과 분노의 반응, 적대감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공격형은 외면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정도가 강하며 행동화하는 형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학생들의 이 유형은 대체로 절도, 폭력, 강탈 등의 비행을 나타내고 모험적인 활동을 좋아한다. 교우형은 불량 교우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비행으로 흡연, 음주, 유흥장 출입, 불량교우와의 결속관계, 불량교우들과의 이성교제 등의 비행을 나타낸다. 여자의 교우형 비행은 특히 이성관계비행이 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남자의 그것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비행의 유형을 안창규의 분류를 수용하여 낙인형, 억울형, 공격형, 교우형으로 나누어 사용하고자 한다.

3. MBTI 성장프로그램의 구성

MBTI가 개인의 자기이해 및 타인이해를 돕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검증하는 MBTI를 활용한 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MBTI와 다른 변인들간의 상관연구였다(고숙경, 1994 ; 김숙영, 1994 ; 최여원, 1994 ; 임병연·임혜영, 1999). MBTI 프로그램을 활용한 아동대상의 연구들로 박정묘(1996)는 초등학교 6학년에게 MMTIC을 활용한 SAM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동들의 자아존

중감과 학습효능감에 향상을 보고하고 있다. 권복순(1996)이 보호관찰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MBTI를 통한 청소년 성장집단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의 자아존중감이 의미있게 향상되고, 자신의 행동과 삶을 통제하는 능력이 의미있게 향상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오현정(1994)은 MBTI를 활용한 부부 인간관계교육을 실시하여 부부역할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역시 부부 집단을 대상으로 한 MBTI 성장프로그램에서 조용우(1997)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부부들이 참가하지 않은 부부들에 비하여 긍정적인 자가지각을 하고 결혼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잠재적 비행청소년을 위한 MBTI 성장프로그램'은 심혜숙과 김명권(1996)이 개발한 '비행청소년을 위한 MBTI 성장프로그램'을 연구대상에 맞게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보호관찰 수강명령대상자 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행청소년을 위한 MBTI 성장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들이 집단 역동 속에서 체험적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행동의 개선점을 찾고 나아가서 더 깊게 비행으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대상자들의 서로 다른 심리적 기능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능별로 일부 다른 내용의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비행청소년들이 부적응적으로 될 때 특히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에서 쉽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형(ST형+NT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로 인간관계 훈련과 공감훈련이 다루어진다.

둘째, 비행청소년들에게는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부적응적으로 될 때 특히 과업수행과 적응상에서 곤란을 유발하기 쉬운 감정형(SF형+NF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로 자기주장훈련이

다루어진다.

셋째, 외향형과 내향형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50시간의 본 프로그램은 크게 4~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MBTI를 통한 자신의 성격유형 및 기질의 확인을 위한 활동(약 15시간), 자신의 가치관 확인과 그의 재정립 그리고 자기이해와 자기노출을 위한 활동(약 5시간), MBTI와 관련하여 자존감 증진, 대인관계 향상, 진로 및 직업 탐색, 그리고 학습방식 검토를 위한 활동(각 4시간씩), 개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상담(문제해결을 위한 질문기법과 합리적-정서적 기법)과 프로그램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촉진활동(약 14시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 내용은 <표 III-2>에 제시되어 있으며, 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 프로그램은 <부록 2>에 수록되어 있다.



4. MBTI 성격유형과 잠재적 비행과의 관계

유형론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성격유형을 형성할 선천적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 이런 선천적 선호경향성이 아동기, 청년기를 지나면서 주기능이 우선적으로 분화발달하며 그 선호경향의 반대극은 상대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있게 된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타고난 성향을 전문화하는 시간이 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뚜렷한 성격유형을 형성하게 되며, 청년기에 이르러서는 무의식에 잠재되었던 열등기능도 의식에 통합되어 원만한 성격유형을 이루기 시작한다. 즉, 성격유형은 고정된 틀이 아니며, 선천적으로 타고난 동시에 후천적으로 통합, 발달되는

전생애에 걸친 과정이다. Jung은 인격의 완성을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통한 원만성이라 보았다. 즉, 자신의 주기능은 우수하게 발달시키면서 균형을 위해 다른 기능들도 개인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적절히 발달시켜 열등기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 열등기능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조기능의 발달의 실패로 균형을 잃고 주기능만을 일방적으로 발달시키거나 주기능이 미분화되어 다른 기능과 혼란상태에 있게 되면 기능들이 미성숙하게 표현되어 부적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각 선호경향이 부적응적으로 표현될 때에는 다음과 같다(고속경, 1994).

내향성이 발달하지 않은 외향성은 외부세계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생각이 행동해 버릴 위험이 있고, 주의가 밖으로만 향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외별적인 태도를 취하며, 외향적 태도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내향성은 외부세계에 적응하는 일을 힘들어하고 비효율적이 되기 쉽다. 감각기능에만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감각형의 경우, 지금 현재의 상태를 영구적인 것이나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대안을 형성하기 위해 직관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직관형인 경우, 가능성에 따르는 구체적 사실과 제한점을 간과하기 쉽고 일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과소평가하기 쉬우므로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실제적인 일의 단계를 고려하도록 감각기능의 사용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정신 기능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고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는 간과하고 타인의 행동에 관심을 두어 타인을 비난하고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경향이 있다. 자신의 기능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감정형의 경우, 자신의 가치와 충돌하는 불쾌한 사실을 무시하고 외면해 버리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기 보다 타인에게 의존적이 되며 온화한 논평조차도 심한 비평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 이들이 냉소주의적이 되거나 부정적인 가치에 집중하여 타인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다. 인식형의 기능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판단형의 경우, 생활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통제력을 상실할까봐 두려워한다. 상황을 인식하기보다 결정하기를 선호하는 판단형들은 때때로 속단하는 경우가 있어 편견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인식기능을 사용하는 전략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고 결정하기 싫어하는 인식형은 일상적인 일조차 미루는 경향이 있고 약간의 구조도 부당한 제약으로 받아들이며 세상이 자신을 일정한 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를 수 있다. 타인들에게는 무책임하게 보이는 행동(미룸이나 미결정)도 이들에게는 자유의 가치로운 행사로 여겨진다. 이들은 생활을 구조화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판단형의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고 결정을 막는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해 검토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MBTI는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기능의 효과적인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가치가 떨어진 열등기능들이 지속적으로 행동화될 때 개인은 정서적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며 가치가 떨어진 열등기능의 이런 행동화가 정상인들에게 때때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Kelly, 1991). 이때 가치가 떨어진 열등기능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주기능인 직관(N)이 작용하지 않고 원시적인 감각(S)이 행동화될 때 생각과 상상 속에서 현실을 왜곡하여 지각하고 자신의 주변에 대해 지속적인 무관심과 게으름을 보이며, 과음, 과식, 약물남용 등으로 감각적인 몰입을 나타낸다. 주기능이 감각(S)이지만 가치가 떨어진 직관(N)이 행동화될 때 미래가능성에 대해 직관적으로 재난을 상상하여 우울이나 파괴적 행동을 보이고 자신의 사회관계에 대해 왜곡하고 편집적인 망상을 나타낸다. 자료를 바탕으로 한 현실과의 접촉을 위해 필요한 감각기능의 힘과 상식은 여기서 결코 활용되지 않는 상태이다. 주기능인 사고(T)가 억압되고 가치가 떨어진 감정(F)이 행동화될 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전반적인

무능력이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울고 토라지는 것 등으로 표현되며 논리적 사실보다 유치한 감정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을 내린다. 부정적 정서(분노, 심술, 무관심 등)를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표현하여 모든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주기능인 감정(F)이 기능하지 않고 가치가 떨어진 사고(T)가 작용할 때 집이나 학교, 직장에서 규칙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애같은 논리를 사용하며, 만성적 불평, 잡담, 심술궂은 복수행동 등을 공정성을 가장하여 나타낸다. 또, 논리적 완벽에 대한 어린애같은 갈망이 성취감 박에 의한 불안, 자기파괴적 행동을 낳고, 자신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심각한 우울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또, 어린애같은 논리는 모든 사회적 관계가 완벽하기를 요구하기도 하여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성격유형이 청소년의 비행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숙영(1994)은 서울 소년감별소에 위탁되어 있는 비행청소년 125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MBTI를 통해 본 비행청소년들의 성격유형'에 관한 연구에서 비행청소년은 내향성(I)보다 외향성(E)이, 직관형(N)보다 감각형(S)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사고형(T)-감정형(F)의 유형에 있어서는 감정형보다 사고형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형(J)-인식형(P)의 유형에 있어서도 판단형의 비율이 인식형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다.

임병연·임혜영(1999)은 천안 소년교도소에 수감중인 493명의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MBTI를 통한 청소년범죄자들의 성격과 유형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범죄자들은 내향형보다는 외향형에, 직관형보다는 감각형에, 판단형보다는 인식형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고숙경(1994)은 부산 시내 1개 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전체 여학생(약 630명)을 대상으로 하여 'MBTI에 나타난 성격유형과 잠재적 비행경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EI척도에서는 E가, TF척도에서는 F가, JP척도에서는 P가 잠재적 비행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SN선호는 잠재적 비행경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다. E, F, P 선호가 잠재적 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중에서도 특히 E, P선호가 잠재적 비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과 잠재적 비행유형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E, F, P가 각각 전반적으로 잠재적 비행경향이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높은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억울형 비행경향에서는 E가 I와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정도의 영향을 주지 않았고, 교우형 비행경향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F는 공격형 비행경향에서 T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정도의 영향력은 나타내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E의 특성과 F의 특성이 억울형 비행경향과 공격형 비행경향을 다소 낮추었다고 생각되며 이런 사실들을 통해 성격유형이 잠재적 비행유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속경(1994)은 그의 연구에서 16가지 성격유형과 잠재적 비행경향과의 관계에 대하여 INFP와 INTP가 억울형 비행경향에서, ESTP, ESFP, ESFJ, ENFP, INTP, ENTP가 공격형 비행경향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고, ESTP, ISFP, ESFP, ESFJ, INTP는 낙인형 비행경향에서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고, 교우형 비행경향에서는 INTP, ESTP, ISFP, ESFP, ESFJ, INFP, ENFP가 다른 유형에 비하여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같이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BTI 성격유형과 잠재적 비행유형과의 관계는 밝혀지지 못하였다. 다만 MBTI 성장프로그램이 잠재적 비행의 각 유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Ⅲ. 연구방법

여기에서는 MBTI 성장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잠재적 비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대상, 연구설계, 연구절차, 측정도구, 자료처리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에 소재한 S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 전체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잠재적 비행청소년 조기진단검사에서 잠재적 비행성향이 타학급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학급을 선정하고 그 학급의 전체학생 30명(15명 상담집단, 15명 비교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설계

연구설계는 전후검사 비교집단 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이다. 상담집단은 Q₁(사전검사)후 X(실험처치)를 투입한 다음 Q₂(사후검사)를 실시하였고, 비교집단은 같은 시기에 Q₃(사전검사)와 Q₄(사후검사)만을 실시하였다<표 Ⅲ-1>.

<표 Ⅲ-1> 연구설계의 구성

상 담 집 단	:	Q ₁	X	Q ₂
비 교 집 단	:	Q ₃		Q ₄

Q₁, Q₃ : 잠재적 비행 조기진단검사 사전검사

Q₂, Q₄ : 잠재적 비행 조기진단검사 사후검사

X : 프로그램 실시

3. 연구절차

상담집단에 투입된 회기별에 따른 기본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시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의 내용

본 프로그램은 심혜숙과 김명권(1996)이 보호관찰 수강명령대상자들에게 투입적용한 '비행청소년을 위한 MBTI 성장프로그램'을 연구대상에 맞게 연구자가 <표 Ⅲ-2>와 같이 재구성한 것으로써, 기본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프로그램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표 III-2> 잠재적 비행청소년을 위한 MBTI 성장프로그램

회 차	활 동 내 용	기 타
제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소개 ◦ 친밀감 형성을 위한 활동 · 서로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 알아내기 · 현재의 느낌 나누기 ◦ MBTI 교육에 관한 소개 및 검사실시 	
제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TI 네 가지 지표 강의 ◦ 개인의 유형해석지를 통한 자기 성격유형 이해 ◦ 유형별 집단활동 · 자신의 성격, 잘하는 것, 친구 사귀거나 혹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방식, 일이나 공부하는 방식,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 상징하는 동물 그리기 · 자기 조의 좌우명 ◦ 당일교육 소감 나누기(조별 소감, 전체 소감) 및 질의 응답 	
제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때의 유형별 집단활동 계속 ◦ 조별 발표 및 진행자의 보충설명 ◦ MBTI사용상 주의점 및 소감나누기 	
제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TI 네 가지 기질 강의 ◦ 기질별 활동 · 여행계획 세우기 · 집단그림 그리기 ◦ 기질별 활동에 관한 정리와 소감 나누기 및 질의 응답 	
제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존중, 자기수용 및 긍정점 발견에 관한 강의 ◦ MBTI를 활용한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중 '강점과 약점'을 이용 한다. 	부록II : 보조프로그램(자기존중감증진 프로그램) 참조

회 차	활 동 내 용	기 타
제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 . 장소와 진행자의 성향에 따라 등산, 운동 경기, 혹은 친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집단적 신체활동을 한다. ◦ MBTI를 활용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유형과 의사소통양식 강의 · 역할연기 대인관계증진을 위한 MBTI관련프로그램 참조 ◦ 소감나누기 및 질의응답 	부록Ⅱ 보조프로그램(대인관계증진을 위한 MBTI관련프로그램) 참조
제7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TI를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성격유형과 기질에 따른 진로, 직업 탐색의 차별 활동 · 가치명료화 · 직업흥미분야 파악 	부록Ⅱ · 보조프로그램(진로탐색 관련프로그램) 참조
제8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TI를 활용한 학습습관 개선을 위한 강의 및 토론 ◦ 질의 응답 및 소감 나누기 	
제9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 응답 ◦ 개인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학습Ⅰ(합리적-정서적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가 정서에 미치는 영향 체험 · 합리적-정서적 상담의 기본구조를 설명해 줌 · 자신이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 생애의 가장 괴로운 기억이나 사건 혹은 최근에 있었던 가장 부정적인 사건 등을 회상하고, 이것을 A-B-C 도식에 맞춰 분석함 · 비합리적 신념들을 논박하는 기술 강의 및 실습 	부록Ⅱ · 보조프로그램(합리적-정서적 치료) 참조
제1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문제해결을 위한 기술 학습Ⅱ(해결지향적 질문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에 언급한 자신들의 문제들을 놓고 5가지 해결지향적 질문기법을 적용함 ◦ 긍정점 발표 :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토대로 자신의 긍정점, 장점, 강점, 성공한 경험, 그래도 지금까지 대처해 왔던 점 등을 50개 이상 적고 발표하기 ◦ 지금까지의 교육전반에 대한 평가 및 소감 발표 	부록Ⅱ : 보조프로그램(해결지향적 질문기법) 참조

2) 프로그램 실시과정

사전검사를 통하여 선정된 연구대상학급의 학생 30명 중에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15명을 상담집단으로, 나머지 15명은 비교집단으로 정하여 구성하였다.

상담집단에게는 1999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토요일 학교일과가 끝난 후에 평균 1일 5시간씩 총 10회 50시간 분량의 프로그램<표 III-2>을 투입하여 운영하였다.

4.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1) MBTI 성격유형검사

MBTI는 Jung의 성격유형론을 바탕으로 Katherine Briggs와 Isabel Myers(1975)에 의해 만들어진 성격유형 검사로서, MBTI 한국어판은 심혜숙과 김정택(1990)에 의해서 타당도가 검증되고 표준화되었다. 한국어판 MBTI는 반분법에 의한 내적 신뢰도가 EI 척도 .77, SN 척도 .81, TF척도 .78, JP 척도 .82로 나타났고, 재검사 신뢰도가 EI 척도 .86, SN 척도 .85, TF척도 .81, JP 척도 .88로 높게 나타났다. 또, MBTI 영어판과 한국어판 간의 구성타당도는 EI 척도 .91, SN 척도 .90, TF척도 .90, JP 척도 .91로 나타났고, 문항분석을 통해 변별타당도를 조사해 본 결과 문항비중의 예언도(prediction ratio)가 E .71, I .76, S .77, N .77, T .71, F .91, J .76,

P .86 으로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현재 쓰이고 있는 MBTI 한국어판 검사지는 총 9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채점식인 GA형과 자기채점식인 GS형으로 구분,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채점식인 GA형을 사용하였다.

2) 잠재적 비행청소년 조기진단검사

이 검사지는 잠재적 비행을 변별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비행과 관련성이 높은 성격적 변인들을 포함한 자기보고 방법에 의한 측정도구로써 안창규(1990)에 의해 연구, 개발, 표준화되었다. 총 210개 문항으로, 비행준거 척도(D30), 자녀양육 척도(PA), 미성숙 척도(IM), 경조성 척도(MA), 폐쇄성 척도(DI), 대인불안 척도(AN), 적대감 척도(HO), 우울 척도(DA), 신체화 신경증 척도(SO) 및 심적 혼란 척도(CO) 등 10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비행준거 척도(D30)와 상관이 .30이상인 문항 85개를 선정한 후 이를 요인분석하고 잠재적 비행 유형을 낙인형, 억울형, 공격형 및 교우형으로 분류해 놓았다. 각 문항은 '예', '아니오'의 진위형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잠재적 비행조기진단 검사의 신뢰도는 내적 합치도 신뢰도계수(KR20)가 10개의 척도에서 .73~ .92로 나타났다. 잠재적 비행청소년 조기진단검사지는 <부록 I>에 실려있으며, 비행유형별 문항 구성은 아래의 <표Ⅲ-3>과 같다.

<표 III-3> 잠재적 비행유형 분류를 위한 문항구성

유 형	문항수	문 항 번 호
낙인형	26(2)	5, 22, 23, 29, 34, 39, 43, 52, 86, 103, 112, 116, 130 , 133, 135, 155, 157 , 160, 161, 173, 175, 182, 187, 191, 196, 200
억울형	22	27, 71, 85, 91, 93, 97, 100, 106, 113, 120, 126, 128, 129, 140, 142, 166, 174, 176, 185, 192, 194, 195
공격형	21	21, 24, 35, 37, 59, 64, 72, 83, 87, 94, 101, 108, 127, 132, 144, 158, 163, 171, 178, 180, 188
교우형	18(2)	6, 8, 10, 26, 31, 46, 56, 74, 78, 82, 96, 107, 119, 130 , 139, 157 , 170, 183
계	87(2)	

단, ()속의 숫자는 중복 문항의 수를 나타내며, 짙은 글씨는 중복된 문항번호임.



5. 자료처리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검사에서 나타난 양 집단의 점수를 SPSS/PC+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하고 T검증을 실시하여 두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상담집단에만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한 후에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하여 프로그램 투입 전-후의 점수의 변화를 SPSS/PC+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하고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p < .01$ 수준과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MBTI 성장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잠재적 비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려는 것으로서, 다음은 가설에 따른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한 것이다.

1. 연구대상에 대한 동질성 검증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잠재적 비행에 대한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간 평균과 표준편차 및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1>과 같이 나타났다.

<표 IV-1>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잠재적 비행의 사전점수 비교

구 분	상 담 집 단	비 교 집 단	t
	$\bar{X}(SD)$	$\bar{X}(SD)$	
낙 인 형	10.33(5.43)	11.80(4.57)	0.83
억 울 형	10.26(3.34)	13.13(4.89)	1.87
공 격 형	11.20(2.75)	11.86(3.48)	0.58
교 우 형	11.66(2.92)	11.93(2.54)	0.27

<표 IV-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하기 전의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잠재적 비행유형별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에 따라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하기 전의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은 잠재적 비행유형별 점수를 볼 때에 동질 집단을 알 수 있다.

2.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MBTI 성장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잠재적 비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투입한 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 가설 1 >의 검증

가설 1 : MBTI 성장프로그램이 투입된 상담집단은 비교 집단에 비하여 낙인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할 것이다.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한 상담집단과 투입하지 않은 비교집단에 대하여 낙인형 잠재적 비행의 사전-사후검사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한 낙인형 잠재적 비행의 사전-사후검사의 점수 비교

구 분	사 전	사 후	t
	$\bar{X}(SD)$	$\bar{X}(SD)$	
상 담 집 단	10.33(5.13)	6.26(2.15)	2.78*
비 교 집 단	11.80(4.57)	11.50(4.84)	-0.06

(* : $p < .05$)

<표 IV-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한 상담집단은 낙인형 잠재적 비행에서 프로그램을 투입하기 전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78, p < .05$). 이는 상담집단에서 프로그램을 투입하였을 때에 낙인

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사전-사후의 낙인형 잠재적 비행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하지 않은 비교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낙인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위의 검증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낙인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 가설 1 >은 수용되었다.

2) < 가설 2 >의 검증

가설 2 :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한 상담집단은 비교 집단에 비하여 억울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할 것이다.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한 상담집단과 투입하지 않은 비교집단에 대하여 억울형 잠재적 비행의 사전-사후검사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한 억울형 잠재적 비행의 사전-사후검사의 점수 비교

구 분	사 전	사 후	t
	$\bar{X}(SD)$	$\bar{X}(SD)$	
상 담 집 단	10.26(3.34)	5.33(1.71)	4.34**
비 교 집 단	13.13(4.89)	12.33(3.92)	0.52

(** . $p < .01$)

<표 IV-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한 상담집단은 억울형 잠재적 비행에서 프로그램을 투입하기 전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34, p<.01$). 이는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한 상담집단에서 억울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사전-사후의 억울형 잠재적 비행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하지 않은 비교집단에서는 억울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위의 검증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억울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 가설 2 >는 수용되었다.



3) < 가설 3 >의 검증

가설 3 :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한 상담집단은 비교 집단에 비하여 공격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할 것이다.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한 상담집단과 투입하지 않은 비교집단에 대한 공격형 잠재적 비행의 사전-사후검사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4>와 같다.

<표 IV-4>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한 공격형 잠재적 비행의 사전-사후검사의 점수 비교

구 분	사 전	사 후	t
	$\bar{X}(SD)$	$\bar{X}(SD)$	
상 담 집 단	11.20(2.75)	5.66(1.91)	6.55**
비 교 집 단	11.86(3.48)	11.60(4.73)	0.21

(** : $p < .01$)

<표 IV-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한 상담집단은 공격형 잠재적 비행에서 프로그램을 투입하기 전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6.55$, $p < .01$). 이는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한 상담집단에서는 공격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하지 않은 비교집단에 대한 사전-사후의 공격형 잠재적 비행 점수를 보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하지 않은 비교집단에서는 공격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검증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공격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 가설 3 >은 수용되었다.

4) < 가설 4 >의 검증

가설 4 :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한 상담집단은 비교 집단에 비하여 교우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할 것이다.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한 상담집단과 투입하지 않은 비교집단에 대하여 낙인형 잠재적 비행의 사전-사후검사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한 교우형 잠재적 비행의 사전-사후검사의 점수 비교

구 분	사 전	사 후	t
	$\bar{X}(SD)$	$\bar{X}(SD)$	
상 담 집 단	11.66(2.92)	5.20(1.78)	7.76**
비 교 집 단	11.93(2.54)	11.06(3.32)	0.91

(** . $p < .01$)

<표 IV-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한 상담집단에서는 교우형 잠재적 비행에서 프로그램을 투여하기 전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7.76, p < .01$). 이는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한 상담집단에서는 교우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하지 않은 비교집단에 대한 사전-사후의 교우형 잠재적 비행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하지 않은 비교집단에서는 교우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검증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교우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가설 4>는 수용되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MBTI 성장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 청소년들의 잠재적 비행에 대한 심리적 이해를 높이고 그들의 잠재적 비행을 예방하여 자아 성장을 돕고자 시도된 실험연구로써,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문제를 ‘MBTI 성장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잠재적 비행(낙인형, 억울형, 공격형, 교우형)의 감소에 효과가 있는가’로 정하고, 이러한 연구문제를 구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1) MBTI 성장프로그램이 투입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낙인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할 것이다.
- 2) MBTI 성장프로그램이 투입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억울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할 것이다.
- 3) MBTI 성장프로그램이 투입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공격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할 것이다.
- 4) MBTI 성장프로그램이 투입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교우형 잠재적 비행이 감소할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소재한 S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급의 학생들에게 잠재적 비행청소년 조기진단검사를 1차 실시하고 타 학급에 비하여 잠재적 비행성향이 높게 나타난 한 학급의 학생 30명을 15명의 상담집단과 15명의 비교집단으로 나누고 상담집단에만 ‘잠재적 비행청소년을 위한 MBTI 성장프로그램’을 투입하였다. 상담집단에는 약 4개월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 방과후에 1일 평균 5시간씩 총 10회 50시간 분량의

MBTI 성장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게 잠재적 비행청소년 조기진단검사를 2차로 실시하였다. 사전-사후검사 결과는 SPSS/PC+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하였다.

가설의 검증은 사전-사후검사 결과에 의한 평균치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T-test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1의 검증결과 프로그램을 투입한 상담집단에서는 낙인형 잠재적 비행에 대한 사전-사후의 점수비교에서 평균치가 10.33에서 6.26으로 감소한 결과(변화치M=4.07)로 알 수 있듯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 < 0.05$). 이는 MBTI 성장프로그램이 낙인형 잠재적 비행의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가설2의 검증결과 프로그램을 투입한 상담집단에서는 억울형 잠재적 비행에 대한 사전-사후의 점수비교에서 평균치가 10.26에서 5.33으로 감소한 결과(변화치M=4.93)로 알 수 있듯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 < 0.01$). 이는 MBTI 성장프로그램이 억울형 잠재적 비행의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가설3의 검증결과 : 프로그램을 투입한 상담집단에서는 공격형 잠재적 비행에 대한 사전-사후의 점수비교에서 평균치가 11.20에서 5.66으로 많은 감소(변화치M=5.54)를 보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 < 0.01$). 이는 MBTI 성장프로그램이 공격형 잠재적 비행의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가설4의 검증결과 : 프로그램을 투입한 상담집단에서는 교우형 잠재적 비행에 대한 사전-사후의 점수비교에서 평균치가 11.66에서 5.20으로 많은 감소(변화치M=6.46)를 보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 < 0.01$). 이는 MBTI 성장프로그램이 교우형 잠재적 비행의 감소에 효과가 있었음

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했던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MBTI 성장프로그램은 낙인형 잠재적 비행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이는 MBTI 성장프로그램이 성적인 비행이나 약물오용,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하여 성인들에게 비행아로 낙인화됨으로써 계속되었던 비행 즉, 낙인형 잠재적 비행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둘째, MBTI 성장프로그램은 억울형 잠재적 비행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이는 MBTI 성장프로그램이 내적 지향적이고 스트레스, 갈등, 성인사회에 대한 현저한 부적응 등으로 자기비하, 열등감, 우울감을 나타내며 성인사회에 대한 반감과 분노의 반응, 적대감 등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억울형 잠재적 비행을 감소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었다.

셋째, MBTI 성장프로그램은 공격형 잠재적 비행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이는 MBTI 성장프로그램이 외면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정도가 강하여 적대감이나 분노를 절도, 폭력, 강탈 등의 비행으로 나타내고 모험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공격형 잠재적 비행의 감소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었다.

넷째, MBTI 성장프로그램은 낙인형 잠재적 비행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이는 MBTI 성장프로그램이 불량 교우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비행 즉, 흡연, 음주, 유흥장 출입, 불량교우와의 결속 관계, 불량교우들과의 이성교제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잠재적 비행의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이처럼 MBTI 성장프로그램은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잠재적 비행의 유형에서 비행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는 MBTI 성장프로그램을 학교교육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잠재적 비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3. 제언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수강명령대상자들에게 투입하여 그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이다.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보다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 투입된 프로그램은 1회에 4~5시간을 요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많은 인내가 필요하며, 따라서 프로그램을 보다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 동안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공식적 기록에 의하거나 또한 처벌 및 교정과정에서 기관에 수용된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비행의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재적 비행에 대한 연구가 보다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MBTI 성격유형과 잠재적 비행유형간의 관계를 밝히지 못하였다. MBTI 성격유형과 잠재적 비행유형간의 관계를 구명하고 성격유형에 따른 성장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의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 문화관광부(1998).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
- 안창규(1985). “청소년 비행의 이론적 연구모형”, 『학생생활연구소 연구보』 제21집,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_____ (1990). “잠재적 비행청소년의 조기진단검사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성곡논총』21집, 부산대학교.
- 노안녕(1980). 비행청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불안의 감소에 미치는 주장훈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심혜숙·김명권(1996) 비행청소년을 위한 MBTI성장프로그램 개발,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 임병연·임혜영(1999). “MBTI를 통한 청소년범죄자들의 성격과 범죄유형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13집, 동국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고숙경(1994). MBTI에 나타난 성격유형과 잠재적 비행경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숙영(1994). “MBTI를 통해 본 비행청소년들의 성격유형”, 『법무연구』 21집, 법무연수원.
- 최여원(1994). MBTI에 나타난 성격유형과 공업고등학교 학교부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현정(1993). MBTI를 활용한 인간관계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성수(1994). “가정교육과 청소년비행의 관계분석”, 『상담과 지도』 제29호, 한국카운슬러협회.
- 김정택·심혜숙·제석봉(1995). MBTI 개발과 활용,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심혜숙·김정택(1993). MBTI성장프로그램안내서(I),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_____ (1994). MBTI성장프로그램안내서(II),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박정묘(1996). 자아정체감과 학업성취지도 통합 프로그램(SAM)이 초등학교
생의 자아존중감과 학습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복순(1996) “더불어 사는 세상 속으로 한발 더 : 징계 청소년 덕성교육
운영에 대한 소고”, 「21세기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부산.
- 조용우(1997). MBTI를 적용한 집단프로그램이 부모들의 자기지각 및 결혼만
족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충기(1997). 생활지도와 상담. 서울:교육과학사.
- 김진희·오익수·김광수·전명희(1995). 비행 청소년 상담 지원 정책, 청소년
년 대화의 광장.
- 강지원·구본용·김성인·황순길(1996). 청소년 비행상담, 청소년 대화의
광장.
- 박태수(1994). “제주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예방”, 「학생생활연구」 제15집. 제
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선남(1994).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 간의 인과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전
남대학교 대학원.
- 심영희(1980). “한국의 숨은 비행의 사회학적 연구”, 「한국사회학」15집.
- 박경희(1987). 준거집단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의 비행에 대한 태도와 비행
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부영(1998). 분석심리학. 서울 : 일조각.
- 이혜원(1992). 비행청소년의 성격과 부모의 양육태도, 석사학위논문, 성신여
자대학교 대학원.
- 이희선(1995). 정상청소년과 비행청소년간의 자아분화 및 정신건강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효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문선화·홍봉선(1993). “비행청소년 자아개념강화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3집, 부산대학교.

김명권·천성문(1992). “비지시적 집단상담이 비행청소년의 자아실현도에 미치는 효과”, 『학생생활연구』 제18집, 경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임노순(1989). 익명과 가명의 조작에 따른 학생비행의 자기노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Empey, L.T.(1978). American Delinquency : Its Meaning and Construction. Homewood, Illinois : *The Dorsey Press*.

Williams, J. R. and Gold, T.(1972). From delinquent behavior to official delinquency, *Social Problems*, 20.

Monahan, J.(1982). Childhood predictors of adult criminal behavior. In F. N. Dutilleul, C. H. Foust, & D. R. Webster(Eds.).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and Juvenile Delinquency. Lexington, Massachusetts : *D.C. Heath & Co.*

Kelly, E.J.(1991). MBTI differences between Emotionally disturbed and Conduct Disordered students,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21.

<Abstract>

The Effect of MBTI Improvement Program on the Adolescent's Latent Delinquency

Ko, Kwang-Ou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Tae-Soo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out the effect of MBTI improvement program on the students. Furthermore this study is not only to help the adolescents or the students understand the nature of latent delinquency but also to prevent their delinquents and to improve self-realization.

The research task is whether the MBTI improvement program is effective to reduce the latent delinquents, which are consist of subcategories of a) brand-type delinquent, b) unfairness-type delinquent, c) aggressiveness-type delinquent, and d) company-type delinquent.

For achieving this research, the hypotheses established are as follow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0.

First, the training group who participate in the MBTI improvement program would reduce a brand-type latent delinquent significantly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Second, the training group who participate in the MBTI improvement program would reduce a unfairness-type latent delinquent significantly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ird, the training group who participate in the MBTI improvement program would reduce an aggressiveness-type latent delinquent significantly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Fourth, the training group who participate in the MBTI improvement program would reduce a company-type latent delinquent significantly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 researcher examined 'testing for a subconscious delinquency' to all classes of the 2nd grade from a business high school in Cheju province. The testing material was produced by An Chang-kyu in 1990. After the test, one class(30 students) diagnosed as most latent delinquent group is selected. The program was put to the 15 subjects of training group, reconstructing 'MBTI program for juvenile delinquent' produced by Shim Hae-suk and Kim Myung-kyun in 1996. They are trained for 10 sessions which lasted 4 months. Each session is for 50 minutes on Saturdays.

In order to testify the hypotheses of the study, the collected data are analyzed by T-test, with SPSS/PC program.

The conclusions obtain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BTI improvement program is effective to reduce a

brand-type latent delinquent

Second, the MBTI improvement program is effective to reduce an unfairness-type latent delinquent.

Third, the MBTI improvement program is effective to reduce an aggressiveness-type latent delinquent.

Fourth, the MBTI improvement program is effective to reduce a company-type latent delinquent.

Consequently, this study verifies that the MBTI improvement program is effective on preventing of the latent delinquents. This strongly suggest us that we should adjust the MBTI improvement program to school circumstances with a view to reducing the delinquency.



부 록

<부록 1> 잠재적 비행청소년 조기진단검사지52

<부록 2> 보조 프로그램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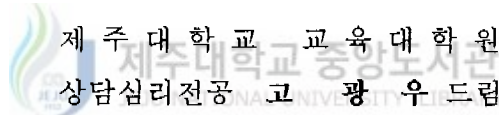
검 사 지

본 검사는 학생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한 내용은 학술적인 연구목적 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개인의 응답지에는 이름이 기재되지 않으므로 응답내용이 공개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각 문항을 빠짐없이 성실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연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응답은 별도로 배부된 응답지에 아래의 요령대로 기재해 주시고 검사지에는 아무것도 기재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9월



응 답 요 령

- 검사지 26. 나는 여름을 좋아한다.
 “예” 이면..... 1
 “아니오” 이면..... 0

응답지

	23	24	25	26	27	28	29	
				1				

검사지의 문항번호와 응답번호가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다른 사람들처럼 나의 가정생활도 즐겁다.
2. 나는 어릴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랐다.
3. 나는 걱정이 너무 많다.
4. 항상 따뜻한 가정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5. 공중전화기나 자판기 등을 부순 적이 있다.
6. 방과 후 외출할 때에 어른처럼 꾸미고 나간 적이 있다.
7. 남 몰래 많은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8. 나는 술을 가끔 마신다.
9. 나는 내 친구 집단에 속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
10. 밤에 시내나 유원지 등에서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논다.
11.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자주 꿈에 나타난다.
12. 부모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나를 취급하신다.
13. 우리 가족들은 서로 싸움을 많이 한다.
14. 걸핏하면 부모님은 나에게 신경질을 잘 내신다.
15.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왔다.
16. 나는 가족들에게서 공평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17. 잊을 수 없는 마음의 큰 상처를 받은 일이 있다.
18. 남이 먼저 인사하기 전에는 모르는 체하고 지나간다.
19.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부모님은 잘 모른다.
20. 나는 내가 미워질 때가 있다.
21. 호신용으로 어떤 기구나 칼 등을 가지고 다닌 적이 있다.
22. 나의 가까운 친구는 상습적으로 약을 사용한다.
23. 내 친구들은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다.
24. 사람이 많이 모인 변화가에 있으면 신이 난다.
25. 부모와 가족이 지나치게 나의 허물을 찾아낸다.
26. 술을 마시거나 취해 본 적이 가끔 있다.
27. 나는 모든 것에 불만을 느낀다.
28. 난 집에서 걸핏하면 두들겨 맞았다.
29. 이상한 냄새를 맡고 환각을 일으킨 일이 있다.
30. 나는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랐다.

31. 화가 나거나 괴로울 때는 술이나 담배 생각이 난다.
32. 잠시라도 조용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다.
33. 나는 집에서 이유 없이 벌받은 때가 자주 있었다.
34. 기분이 나쁠 때 약으로 기분을 푼 적이 있다.
35. 나의 친구들은 모험스러운 일을 즐긴다.
36.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어떤 사람이 무섭다.
37. 스틸을 즐기려고 위험한 일을 한 적이 있다.
38. 부모님은 나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39. 친구가 환각주사를 맞는 데 따라간 적이 있다.
40. 거의 매일 무섭고 놀라운 일이 생긴다.
41. 부모님이나 형님(또는 오빠)에게 흔히 두들겨 맞곤 했다.
42. 다른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어도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43. 재수나 낙제, 퇴학을 당한 적이 있다.
44. 어떤 일이나 사람 때문에 언제나 불안하다.
45. 떠들며 즐길 수 있는 행사나 파티에 가기를 좋아한다.
46. 학교에서 담배생각이 나서 담배를 피워 본 적이 있다.
47. 아주 쉽게 결정을 내릴 때가 많다.
48. 오랫동안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불안하다.
49. 부모님은 내 생각이나 행동을 철저히 감독하려고 한다.
50. 가족보다는 오히려 친구가 낫다.
51.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
52. 나는 보통 술을 1주일에 한 번 이상은 취하도록 마신다.
53.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놓아서 지쳐버리는 수가 있다.
54.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부모님은 잘 모르고 있다.
55. 나의 가족 중에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56. 언제나 어떤 장소에 가면 나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57.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기가 쉽다.
58.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 성가시다.
59. 경기나 게임은 내기를 해야 더 재미 있다.
60. 부모님의 기분에 따라 벌받을 때가 많다.

6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를 많이 한다.
62. 나를 정말 해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63. 잠시라도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할 때가 많다.
64. 어린 나이에 성 문제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65. 나의 속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66. 틀림없이 남들이 나에게 관한 말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67. 내 문제를 우리 부모님에게 터놓고 말하지 않는다.
68. 누가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
69. 불합리한 일까지도 부모님은 기어코 나를 복종시켰다.
70. 자기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71. 한가지 일에 마음을 집중할 수가 없다.
72. 현재 나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이성문제이다.
73. 지목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조용히 지낸다.
74. 나의 친구들과 같이 특별한 옷차림을 하려고 한다.
75. 가족 중 누가 나에게 한 일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다.
76. 목에 무엇이 막혀있는 것 같은 때가 많다.
77. 사람들은 속으로는 싫어하면서 겉으로는 돕는 척한다.
78. 부모님은 내가 사귀는 친구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79. 가족들은 나를 장래 가망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80. 잠을 잘 때 자주 깨고 다시 이루기가 어렵다.
81.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82. 방과 후 친구들과 대부분 노는 편이다.
83. 상점이나 백화점에서 몰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84. 부모님은 나의 감정을 해치는 것에 무관심한 것 같다.
85. 항상 입안이 마른 느낌이 든다.
86.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조퇴 및 결석을 한 적이 있다.
87. 남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좋아 보여 훔친 적이 있다.
88. 집에서 나는 꾸지람을 자주 듣는다.
89. 가족 중에 몹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90. 메스껍거나 토해서 곧잘 고생한다.

91. 대체로 나는 학교에서 낙오자라고 생각한다.
92. 부모님은 나를 낳았을 뿐 교육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93. 어른들은 대부분 우리를 억눌러 지배하려고 한다.
94. 부모님 허락 없이 돈이나 물건을 가져다 쓴 적이 있다.
95. 현기증이 나는 일이 가끔 있다.
96. 나는 가끔 담배를 피운다.
97. 경찰관이나 학생지도 선생님들은 믿을 수가 없다.
98. 부모님은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다.
99. 나는 쉽게 피로를 느낀다.
100. 대부분의 경찰은 좀 멍청해 보인다.
101. 타인의 물건이나 돈을 허락 없이 가져 본 적이 있다.
102.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일이 많다.
103. 상·하급생을 두들겨 패주거나 꿀탕을 먹인 적이 있다.
104.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105. 가슴이 뛰거나 숨이 가빠지는 일이 있다.
106. 할 수만 있다면 곧 학교를 그만 두고 싶다.
107. 낯선 남자나 여자를 놀리거나 꿀탕을 먹인 적이 있다.
108. 물건을 슬쩍 하지 않고는 못 견딜 때가 가끔 있다.
109. 나는 저주받은 운명의 인간이다.
110. 부모님은 어떤 사소한 일에도 철저히 간섭하려 했다.
111. 나는 언젠가는 자살하고 말 것이다.
112.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과 싸움, 시비를 건 적이 있다.
113. 법률이란 모조리 없애 버리는 것이 낫겠다.
114.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남의 주목을 끌고 싶다.
115. 나는 머리가 자주 아프다.
116. 어떤 학생을 붙잡고 돈이나 물건을 강요한 적이 있다.
117.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도 나를 더 싫어했다.
118. 내 몸과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119. 납부금 통지서의 내용을 바꾸어 기록한 적이 있다.
120. 무엇을 읽어도 전과 같이 이해할 수가 없다.

121. 의식은 있어도 몸을 움직이거나 말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122.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버려두는 편이다.
123. 이상하고 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124. 나는 호흡이 곤란할 때가 종종 있다.
125. 가끔 누군가 내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126. 근육이 마비되거나 나른해지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127. 돈을 걸고 화투·트럼프 놀이 등을 자주 한다.
128. 정말 화가 나면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 해버린다.
129. 확실히 내 팔자는 나쁘다.
130. 음악다방·디스코홀 또는 학생금지구역에 자주 간다.
131. 나는 까닭 없이 짜증이나 심술이 난다.
132. 약한 녀석을 위협하거나 겁을 준 적이 있다.
133. 간혹 주먹다짐을 할 때가 있다.
134.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135. 학교 밖에서 건방진 녀석을 보면 가만두지 않는다.
136. 요즈음 제정신을 잃을까 두려워진다.
137. 나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138. 우리 가족들은 아버지가 오히려 없었으면 할 때가 있다.
139. 이성친구 때문에 싸운 적이 있다.
140. 나는 무엇이고 때려부수고 싶을 때가 있다.
141. 요즈음 내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것 같다.
142. 까닭 없이 갑자기 몸이 화끈거릴 때가 있다.
143. 내 혼이 가끔 내 몸을 떠나는 것 같은 때가 있다.
144. 때때로 욕설을 퍼붓고 싶을 때가 있다.
145. 논쟁에서 쉽게 지고 만다.
146. 우리 가족들은 나를 어린애 취급한다.
147. 일이 잘 안 될 때는 금방 집어치운다.
148. 내가 이미 결정한 것도 다른 사람 때문에 쉽게 잘 바꾼다.
149. 하고 싶은 일이라도 남들이 대단찮게 여기면 그만둔다.
150. 매사가 나에겐 의미가 없다.

151. 일을 처리하는 것이 어쩐지 서투르다.
152.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있으면 기를 펴지 못한다.
153.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못났다는 느낌이 든다.
154. 남이 잘못된 것도 내 탓인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많다.
155. 때때로 문제 해결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싸움이다.
156. 나는 쓸모 없는 인간이란 생각이 든다.
157. 이성과 함께 외박을 한 적이 있다.
158. 남의 행동에 관해서 시비를 따질 때가 많다.
159. 평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공상하는 경우가 많다.
160. 나는 싸움에 많이 말려든다.
161. 이성친구들과 어울려 여럿이서 캠핑을 간 적이 있다.
162. 어릴 때부터 나의 어떤 일도 어머니 마음에 차지 않았다.
163.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복하고 말 것이다.
164. 나의 모든 일들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
165. 가끔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66. 누가 한 사람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장면은 기분이 좋다.
167. 누구라도 나에게 감히 달라들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
168. 부모님은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없다.
169. 이상한 꿈을 자주 꾸다.
170. 많은 이성 친구를 쉽게 사귀고 쉽게 헤어진다.
171. 나는 어떤 사람을 화나게 하는 일이 재미있다.
172. 부모님은 내가 속상해 있어도 본체만체 할 때가 많다.
173. 쉽게 남들이 나를 무서워하게 할 수도 있다.
174. 아주 기이하고 이상한 경험을 한 때가 있다.
175. 친구들과 함께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있다.
176. 가끔 자신이나 남을 해칠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177. 내 마음에는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다.
178. 남을 놀래주거나 해롭게 하려는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179. 나에게서는 인생이란 늘 과중한 부담이다.
180. 거친 행동을 해서 상대방의 기를 꺾으려고 한 적이 있다.

181. 상담선생님과 상담한다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182. 법에 걸려 본 일이 있다.
183. 이성친구와 지내다가 늦게 집에 돌아온 일이 가끔 있다.
184. 혼자 있을 때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185. 나는 올바른 생활을 해 오지 못했다.
186. 나는 비밀이 많은 편이다.
187. 파출소나 경찰서에 불려가 심문을 당한 적이 있다.
188. 어떤 사람이 미워서 어떻게 보복할까 생각하고 있다.
189. 부모님은 내 생각·행동까지도 철저히 지배하려고 했다.
190. 자살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때가 있다.
191. 학교에서 근신이나 정학을 당한 적이 있다.
192. 내 마음은 나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193. 실컷 울어보았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194. 나는 나 자신을 해롭게 하고픈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195. 선생님이 나의 일을 알까 두렵다.
196. 나의 성적인 행동으로 말썽이 일어난 일이 있다.
197. 나는 내가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198. 나는 언제든 죽었으면 한다.
199. 가족 중 아무도 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200. 교외생활지도 선생님에게 지적당한 적이 있다.
201. 행동을 한 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때가 있다.
202.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된다.
203. 어머니는 나의 어떤 일에도 항상 극성스럽게 참견했다.
204.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잠을 이룰 수 없을 때가 더러 있다.
205. 가출하거나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다.
206. 신경안정제를 먹어본 적이 있다.
207. 화나는 일들이 나에게서 많이 일어난다.
208. 누가 내 뒤를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것 같다.
209.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일이 잘못되어 갈 것만 같다.
210. 우리 몇몇 친구들과의 결속은 매우 강하다.

보조 프로그램

□ 자기존중감 증진 프로그램

다음에 언급되는 활동들은 지도자의 개인적인 관심이나 집단원들의 특성 그리고 집단 프로그램의 실시기간에 따라 유통성 있게 선택하고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존중감 1 : 강점과 약점

1. 자기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공개적이고 솔직하게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의 최대 강점과 약점들을 각각 5개씩 적으시오.
2. 앞으로 4년 동안 위에 열거한 5개의 약점 중 어떤 것을 가장 향상시키고 싶습니까?
3. 당신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기술이나 강점을 활용하고 싶습니까?
4. 당신의 약점을 자세히 살펴보아서 이 약점이 강점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을 결정해 보십시오.
5. 당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최대의 약점들이 가지는 긍정적인 점들을 5가지 적어 보시오.(예를 들면, 수줍어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많은 사람보다 경청을 잘하므로 더 많이 배운다.)
6. 이제 당신은 약점이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당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싶습니까? 왜 그런가요, 혹은 왜 그렇지 않은가요?
7. 변화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적어 보십시오. 당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

신하기 위해선 오늘 당신이 실행한 작은 일 하나면 족하다는 것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8. (매주 단위의 프로그램이라면) 다음 주에 이 작은 단계를 실행할 날짜와 시간을 적으시오. 당신이 진보하는 것을 매일 확인하시오.
9. 첫주 마지막에, 당신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연습하면서 당신 자신에 대해 관찰한 것, 느낀 것, 반응한 것 등에 대해서 적으시오.
10. 지난 주에 당신이 적은 당신의 강점과 약점을 다시 보십시오. 당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행한 작은 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노력했고 꽤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꺼린다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을 말해 보십시오.
11. 다음의 말을 채우시오.
나는_____을 상상하는 것이 끔찍하다(두렵다).
12. 이번엔 앞에 것과 반대로 성공한 긍정적 결과를 상상하시오. 그것을 여기에 쓰시오.
13.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음 단계에 대해서 써보십시오.
14. 당신이 내키지 않는다면, 당신의 그 약점을 계속 지니고 산다면 어떤 결말이 일어날까요?
15.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약점의 결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은지 설명해 보세요.

지도자 유의사항 :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지도자 자신이 개인적인 약점을 극복한 사람의 설명을 읽어보라. 약점을 인식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들을 선정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참가자들과 토론해보라. 이 활동은 다른 것들 보다는 상세하다. 이 활동의 의도는 집단원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자기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단계들을 실천하도록 격려하는데 있다.

자기존중감 2 : 그래서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다.

1.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하여 변화시키고 싶은 것,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 또는 당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10개를 적어보시오.
2. 다 적으셨으면 위의 내용들을 이용하여 다음의 문장을 완성해 보시오.
① 나는()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가치있는 사람이다.
② 나는()이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가치있는 사람이다
(①, ②를 각각 10개 적음)

자기수용 선언문 : - 나는 지금 이대로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 나는 나의 인생을 위하여 행복할 권리가 있다.
- 나는 내가 가진 것이나 이룬 것과 상관없이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3.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나, 이것들에 대해 뭔가 할 수 있는 것 3개를 적으시오. 그리고 각각에 대해 그러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단계들을 적어보시오.

지도자 유의사항 : 자신들의 단점에 대해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생각들을 집단에 반드시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 활동의 의도는 참가자들이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인식하고 자기 향상을 위한 활동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 있다.

자기존중감 3 : 나의 성공들

1. 당신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경험한 긍정적인 경험 3가지를 적으시오. 이 경험들이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를 말하십시오.
2.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당신이 해낸 것들 중에서 자랑스럽

게 생각하는 3가지를 적으시오. 당신에게 이것들이 중요한 이유를 말하시오.

3. 중1에서 중3까지 당신이 해낸 것들 중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3가지를 적으시오. 이 성공들이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를 말하시오.
4. 최근에 당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적으시오. 이 성공들이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를 말하시오.
5. 다음 3개월 안에 당신이 이루고자 마음먹은 목표 하나를 고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적으시오.
6. 당신에게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내려보시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의 의미들과 어떻게 다른가?

지도자 유의사항 : 참가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치를 반영하는 어떤 활동이나 어떤 종류의 일들이 가장 중요한지를 발견하도록 한다. 그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가치들이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토론한다. 4명이 한 집단이 되어서 자신들의 성공경험들을 나누도록 한다. 그러면 이들은 상대방의 강점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 연습은 참가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많은 긍정적인 성질들을 보게 하고, 자신들의 강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므로써 인생에서 성공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도록 도와준다.

자기존중감 4 : 나의 긍정점 50가지

MBTI의 자신의 성격유형과 기질에서 나온 장점들과 그외의 긍정점들을 모두 적게 한다. 긍정점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 문제가 없는 부분들(신체, 건강, 정신 등), 잘하고 못하는 것과 관계없이 자신이 살면서 성취한 것들, 성공했던 점들을 구체적으로 사소해 보이는 내용들까지 모두 적게 한다. 예를 들면, '나는 다리가 건강하다', '나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와 같은 내용도 포함이 된다.

□ 진로 탐색 관련 프로그램

다음 프로그램들은 목적과 동기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들이다.

진로 1 : 목표-수립활동

1. 당신이 집을 떠나서 방문하고 싶은 곳 10개를 적어보시오.
2. 당신이 아주 잘 다루고 싶은 기술 10개를 적어보시오.
3. 당신이 읽고 싶은 책이나 저자의 이름을 10개 적어보시오.
4. 당신이 가지고 싶은 신체적인 기술이나 특기를 10개 적어보시오.
5. 당신이 늘 하고 싶으나 시간이나 돈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 10개를 적어보시오.
6. 당신이 살고 싶은 곳 10개를 적어보시오.
7.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일 10개를 적어보시오
8. 당신이 경험하고 싶은 모험 10개를 적어보시오.
9. 별도의 용지에 위의 영역들 외에 당신이 원하는 목표 영역들을 적고, 각 영역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것 10개를 적으시오.

지도자 유의사항 : 개인적인 목표를 갖는 것은 자기존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들과 그들의 목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 이 활동은 청소년들 자신이 원하는 직업분야들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진로 2 : 목표설정을 위한 영역들

1. 당신이 개발하거나 향상시키고 싶은 개인적인 습관 5가지를 적으시오.
2. (당신이 지금 학생이거나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당신이 향상시키고 싶은 학과목을 2개를 적으시오.
3. 당신이 향상시키고 싶은 사회적 기술 세가지를 적으시오.
4. 당신의 신체나 건강에 대해서 당신이 성취하고 싶은 것을 적어보시오.

5.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적어보시오.
6. 당신은 오락에 관한 어떤 기술을 개발시키고 싶습니까?
7. 어떤 직업이 당신의 장점, 재능, 그리고 관심에 가장 잘 맞습니까?
8.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형태의 인간관계를 갖고 싶습니까?

지도자 유의사항 : 이 활동을 집단원들의 개인적 목표에 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개인적인 목표의 중요성과 장점들을 목표를 성취하는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게 하므로써 참가자들이 자기향상을 위해 노력할 특정한 분야들을 알아내고, 그들의 목표를 이루어 균형잡힌 삶을 살도록 하는데 있다.

진로 3 : 개인적 기대들

우리는 가끔 혹은 자주 부모나 선생님들이 우리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 때문에 압박을 느낍니다. 그런데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거는 기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음의 관련된 내용들 밑에 그런 기대들을 적어보시오. 이러한 요구나 기대들은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1. 개인적인 몸가짐이나 옷에 대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2. 대인관계 기술에 대해선 어떻습니까?
3. 당신의 교육이나 학업에 있어선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4. 신체적인 활동과 관련해선 어떤 것을 이루고 싶습니까?
5. 예능이나 예술과 관련해선 무엇을 좀 더 하고 싶습니까?
6. 당신의 직업을 위해선 무엇을 준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까?
7. 어떤 종류의 인생간이나 가치관을 계속 지니고 싶습니까?

지도자 유의사항 · 집단원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기대들을 표현하도록 한 다음에, 그들의 부모나 선생님들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반응할 것인지를 적어보게 한다. 그리고 이 차이점에 대해서 토론한다. 각 개인은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개념을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이 활동을 마치면 참가자들은 그들의 개인적 기대들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느낄 것이다.

□ 합리적-정서적 치료

이것은 잘 알려진 상담기법으로, 이 치료 방법의 대체적인 과정은 문제 상황(A), 그 상황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C) 그리고 바로 이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비합리적 사고(B)를 파악한다. 이 방법의 핵심은 내담자의 핵심적인 비합리적, 비현실적, 자기과괴적 사고를 발견하여 그것을 토론하고 수정하여 합리적, 현실적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고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엘리스의 [알콜중독과 약물 남용자를 위한 합리적-정신적 치료, 1988]을 토대로 이 방법의 핵심인 비행청소년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비합리적 사고들과 이것들의 수정된 합리적 사고를 제시하여 비행청소년들을 이 방법으로 상담하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한다.

비행청소년들의 낮은 성적이나 의욕저하 그리고 약물남용 등은 낮은 좌절인내도와 불편, 불안 등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나는 지금 상태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와 같은 사고내용으로 나타난다. 현재의 불편함이나 불안을 참을 수 없다고 강하게 믿는 청소년들을 위해 Young(1983)은 다음을 추천한다.

- 1) “참을 수 없어”를 “지내기 힘든”으로 바꾸도록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그래. 그렇게 최악은 아냐. 나는 견딜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결론은 내리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 2) “어렵다”와 “불가능하다”의 차이를 설명해 준다.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문제상황이 정말 불가능한지 아니면 단지 참기 어려운

것인지를 조사해 봄으로써 “참을 수 없어”라는 개념이 보다 확실해진다.

- 3) “할 수 없어”를 “하고 싶지 않아”로 대치한다.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듣자마자 “하고 싶지 않아”라고 재빨리 대치시켜 주는 것이 좋다. 이것을 통하여 상황이 자신의 태도-이 태도는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끔찍한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태도인 것이다.
- 4) 내담자에게 현재 그는 갈등 중인 상황을 견뎌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그가 아무리 불평하고 부정하더라도 지금 문제를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예컨대 “더러워서 이젠 학교 못 다니겠다”고 위협하는 청소년에게 그런 결정은 자신에게 결국은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힘든 학교생활을 잘 견뎌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 5)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담자의 인생은 이미 끝장이 났을 것이라고 설명해준다. 그러나 내담자는 지금 곤경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으며, 물론 이 상황을 본인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어려움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비행청소년들의 또 다른 고질적인 비합리적인 사고로 “내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다면 나는 나쁜 놈이다”와 같은 자기비하적인 사고내용이 있다. 이것은 자기존중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러 부정적인 행동적·정서적 문제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타파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가치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모순되는 증거들을 확신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토론하고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다. 핵심적인 것은 몇가지 자신의 행동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자기과괴로 몰아가게 된다고 설명해준다. 자기비하를 타파하기 위한 “자기수용”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적인 사고내용들은 다음과 같다(Bernard & Joyce, 1984).

- 1) 모든 사람은 단순하지가 않고 복잡하다. 즉 단순히 인간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수는 없다.
- 2) 나도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
- 3) 모든 사람은 많은 긍정적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 4) 나도 많은 긍정적 부정적 면들을 가지고 있다.
- 5) 한 개인의 몇가지 특징들 때문에 그 개인이 전적으로 좋은 사람이거나 전적으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 6) 나도 전적으로 좋은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은 아니다.
- 7)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특징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 8) 나의 부정적인 특징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 9) 단지 나의 부정적인 성질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나는 다른 긍정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다.
- 10) 내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합리적인 생각을 할 때 보다는 훨씬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자기비하에 대한 매우 훌륭한 해결은, “좋은” 혹은 “나쁜” 사람에 대한 완벽하고 공통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없다는 합리적. 정서적 상담의 기본가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고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도움이 된다.

- 1) 모든 사람은 항상 실수를 한다.
- 2)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 3) 자신의 실수들이 한 개인의 좋은 특징들을 바꿀 수는 없다.
- 4)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5) 사람들이 실수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 6) 실수를 한다고 비난받거나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7)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이유는 기술의 부족, 부주의나 판단부족,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음, 잘못된 생각들, 피곤하거나 병들어 있음, 다른 의견들이나 비합리성 등 때문이다.

거의 모든 비행청소년들이 음주경험이 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거나 알콜보다 심각한 다른 약물을 남용하거나 중독되어 있는 숫자도 적지 않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음주나 약물사용은 비행이나 범죄와 매우 자주 연결되는 것이다. 다음은 알콜이나 약물에 대한 일반적인 비합리적 사고들과 이것들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한 것이다(Ellis, McKinerney, DiGiuseppe & Yeager, 1988).

- 1) “술을 먹고 잠시 내가 통제력을 상실한다고 해도 음주는 나에게 문제가 아니다. 술을 먹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일이다.”

합리적 사고 : 통제력을 잃는 것은 문제의 첫 번째 징조이다. 그리고 나의 음주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조만간 나에게도 문제가 될 것이다.

- 2) “나는 편안해지기 위하여 술이 필요하다.”

합리적 사고 : 나는 술을 마시고 싶다. 그러나 내가 술마시기를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술을 마셔야 되는 것은 아니다.

- 3) “내가 편안하게 느낄 때는 언제나 술을 마시고 기분이 고조되어 있을 때이다.”

합리적 사고 : 사람들과 지낼 때 술이나 약물을 하지 않고 편안해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술을 마시지 않고 지낸다.

- 4) “술을 끊는 것은 어렵다. 나는 내 친구들을 모두 잃어버릴 것이고 술을 안마시면 권태로와지고, 편안하게 지낼 수 없을 것이다.”

합리적 사고 : 술이나 약물복용을 끊는 것은 나에게서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만일 술을 끊지 않으면 그 결과는 더욱 나쁠 것이다.

□ 변화를 위한 해결지향적 질문기법

여기서 해결지향적 질문기법들은 [해결중심적 단기가족치료](한국가족치료 연구회, 1994)의 원리에서 빌려온 것이다. 저자 김인수는 상담에서 질문과 대답은 치료자가 갖고 있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최고의 가치라고 하였다. 치료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슨 질문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질문은 하고 어떤 질문은 하지 않느냐 하는 결정은 항상 무엇이 목표인가와 관련되어야만 한다.

본 프로그램에선 집단원들이 이 몇가지 치료적 질문과 자기변화의 원리들을 숙지하여 자신들의 문제에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각 개인이나 소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기법은 다음과 같다.

1) 과거의 성공과 면담전 변화에 관한 질문

○ 과거의 성공

상담과정을 통해서 치료자는 내담자의 과거 성공한 경험이나 잘 적응했던 생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즉, 내담자는 과거에 꽤 잘 생활했었던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내담자가 기대했었던 것보다도 성공적이었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한 경험이다. 내담자는 과거에 자신이 잘 생활해 왔다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담자 생활에서 이러한 성공적인 기간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한때 잊었거나 사용하지 않았던 문제해결 기술을 발견한다면, 치료자와 내담자의 다음 과제는 현재의 어려움을 그 기술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내담자가 간직해 온 작지만 중요한 성공경험을 발견하는 것은 내담자가 자기자신을 재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내담자가 과거에 자신의 성공을 돌아보거나 그 성공을 재검토해 보았을 때, 자기자신에 관하여 희망을 갖기가 더 쉽다. 다음은 치료자가 물을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의 예이다.

먼저 최근 혹은 자신이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적어보게 하거나 회상시킨 후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해 보도록 한다. 집단을 형성하여 각자

의 성공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다.

-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한 힘이 무엇이었지?”
- “그렇게 밀고 나가는 힘을 어떻게 발견했지?”
-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내왔었지?”
-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인생을 다시 가다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 “자네가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던 때의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하다고 생각하지?”

○ 면담전의 변화

정상적으로 치료자와 내담자는 문제로 인해 처음 대면하게 되므로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며, 내담자가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다.

치료전 변화가 있을 경우에 이 변화를 발견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처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약속했을 때부터 실제 찾아올 때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혹시 그런 변화를 느낀 적이 없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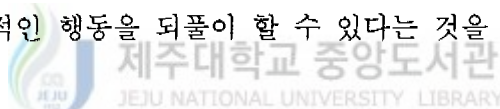
2) 예외를 발견하는 질문

“예외”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때를 가리킨다. 치료자와 내담자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문제 양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대개 문제행동은 어떤 물리적으로 관련된 주제 맥락에서만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수철이는 집에서만 성질을 부리고 다른 곳, 즉 학교나 교회와 같은 곳에서는 온순하다.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담자는 또 다른 어떤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는 것이다. 성공이 있다해도 내담자가 겪었던 수많은 문

제들과 비교해 보면 매주 작은 것에 불과하므로 작은 단계부터 시작한다. 다음은 질문의 예들이다.

- “새 엄마가 싫지 않게 느껴진 적인 언제였지?”
- “덜 우울해지는 때가 언제이지?”
- “자네가 말한 좋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날은 언제였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지?”
- “자네가 더 자주 그런(바람직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
-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전과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인 내담자의 성공경험들에 대해 강한 언어적 강화를 주므로써 자신의 바람직한 행동이나 유리한 상황을 새롭게 자각하고 그런 행동을 반복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담자는 자신의 성공을 인정할 수 있다. 내담자는 자신을 더 믿게 되고 자존심이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내담자가 성공적인 행동을 되풀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기적에 관한 질문

기적에 관한 질문은 해결중심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내담자는 이 질문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미래의 상태로 향하게 되고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징조를 보이기 시작한다. 즉 기적질문은 첫째, 내담자의 생활에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와 똑같은 생생한 상상이나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둘째, 내담자가 지금까지의 생활과는 다르게, 자신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기적질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밤 당신이 잠자는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서 당신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엇이 달라져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거의 모든 내담자는 활기를 띄면서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작고 성취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하기 시작한다. 이때 내담자를 좀더 도와준다면 가능한 한 훨씬 자세히 머리속에 상상한 변화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 과제는 “기적”으로 이끌만한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내담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기적 질문에 관한 전형적인 대답은 다음과 같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웃으면서 저보고 ‘잘 잤느냐’고 묻고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기분 좋게 하고 계시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부모님께 아침인사를 드리고…… 밥상에선 서로 대화를 시작해요. 가벼운 걸음으로 학원을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설거예요” 보는 바와 같이 긍정적 변화를 상상속에 그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치료자는 이것에 대해 강하게 강화를 준다. 즉 “그말은 아주 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들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야, 내 삶에 어떤 것이 달라졌어!’라고 말할 수 있는 첫번째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집단의 형태 속에서 이 질문을 적용할 때에는 먼저 기적질문에 대해 각자 대답을 적거나 말로 표현하도록 한다. 그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혹은 2인 혹은 3인이 한 조가 되어 자신들의 대답내용을 교환하도록 한다. 기적질문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한다.

-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밖에 다른 것은 무엇이 있지요?”
- “기적이 일어난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어머니(친구)는 무엇을 보고 당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 “당신의 어머니 (또는 다른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담자에게 문제해결점을 찾기 위하여 필요한 첫번째 단서를 제공하며, 내담자가 어떻게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킬 것인지 보여주므로써 내담자를 자극하고 생활이 변화할 수 있도록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내담자가 원하는 삶의 변화가 어떤 것이지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는데 매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4) 척도 질문

척도질문은 내담자의 자존심, 자기믿음, 변화하려는 욕구나 의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선순위, 희망의 정도, 상담진행의 평가 등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 등을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상담자는 “오늘”, “지난주”, “지난달 동안” 등의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한계가 없다면 내담자는 혼란을 느낄 것이다. 한 예로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척도질문의 실례를 보겠다.

- 상 : 100이라는 숫자는 자네가 원하는 아주 이상적인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야. 오늘 자네는 0에서 100사이에 어디쯤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
- 내 : 20쯤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아버지랑 싸웠거든요.
- 상 : 똑같은 척도에서 100에 가장 가까웠던 적은 언제였고, 얼마쯤 되었었지?
- 내 : 70이고요. 2년전에 있었어요.
- 상 : 그때 생활이 어땠었지?
- 내 : 그때는 내 자신에 대해 보다 자신이 있었어요. 학교에도 다녔고, 스스로 괜찮다고 느꼈었고, 희망도 있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 상 : 자네가 70에 가까워 지려면 무엇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 내 : 내가 무엇을 해야할 지 알고 있어요. 단지 2년전만 하더라도 저는 훌륭한 학생이었고 야망도 있었어요.
- 상 : 그럼, 20에서 25로 끌어올리려면 무엇을 해야할까?
- 내 : 그건 아주 쉬워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 상 : 그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일자리를 찾는다면, 무엇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되지?

해결중심치료에선 숫자는 마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척도질문을 자주 사

용하길 권하고 있다. 현재 숫자 상태에서 아주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내담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할 때 이미 변화는 시작되는 것이다. 이 척도질문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 인간관계의 평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다.

5) 대처 질문

내담자가 극심한 곤경에 빠졌어도 현재에 이를 수 있게 된 대처방법들을 질문하므로써 내담자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다. 앞의 모든 질문과 마찬가지로 치료자의 목표는 내담자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신의 장점과 자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대처질문은 내담자의 신념체계와 무력감에 대항해보는 동시에 내담자에게 약간의 성공을 느끼도록 해준다.

- 내 :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계속 맞으면서 컸어요. 아버지가 술을 마셨을 때는 한밤중이라도 저를 깨워서 아무 이유없이 마구 때리곤 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 상 : 나는 그러한 끔찍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보호해 온 자네의 저력에 매우 놀라고 있네. 아무 도움없이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낼 수 있었지?
- 내 :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끔찍한 상황도 지나가고 말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냥 그 무서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을 뿐이에요.

이 내담자는 아무리 무서운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 끝날 것이라는 기대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넘기고 대처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 상 : 자네 집안의 음주경력과 자네의 끔찍한 경험을 들어보니 아무 것도 도움이 안된다고 믿는 자네를 이해하겠네. 그래서 말인데, 그런 날들을 어떻게 견디어 낼 수 있었지?
- 내 : 죽지 못해 사는 것이죠. 이런 운명을 생각하면 괴로워요.
- 상 : (호기심과 놀라움을 보이며) 어떻게 살아 갈 수 있지? 매일 매일이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지?

- 내 : 본드를 하거나 술을 마시죠. 내겐 희망이 없어요.... 나는 아무 것도 되지 못할 거예요
- 상 : 그래? 그런데 나는 자네의 생각에 동의하기가 어렵네. 자네가 매일 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자네가 매일 눈을 뜨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 내 : 어떡해요. 할 수 없지요. 일어서서 간신히 학원에 갑니다. 이견지옥이에요. 생활이 즐거워야 하는데...
- 상 : 그래.. 공감이가네. 그런데 어떻게 매일 아침 일어나 학원에 갈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자네가 겪어온 학대, 알콜중독의 부모, 제대로 크지 못한 것 등을 생각하면 자네가 매일 매일 살아가는 것은 정말 놀라울 따름이야.
- 내 : 그전 그리 대단한 일은 아녜요. 저는 잠에서 깨어나서 어머니를 생각하려고 노력하죠. 이 다음에 제가 크면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잘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도 제가 학원에 결석한 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 상 : 바로 그 점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자네와 같은 힘든 과거가 없는 사람도 결석을 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참 대단하군.

내담자에게 그런 심각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가까스로 대처해 왔는지 설명하라는 질문에 내담자는 매일 간신히 지탱해올 수 있었던 작은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가까스로 대처해 온 이 방법이야말로 그가 계속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이다. 첫 단계는 내담자 자신이 대처기술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며, 그 다음에 차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자원과 힘을 깨닫기 시작한다.